

월명동 작품의 사연 설명

자료제공 : 2008년 12월 27일 선교본부 교육국

- 월명동 홍보책자 '신화의 동산 월명동' 에서
- 2006년 3월 24일 영상말씀에서
- 도움 주신 분 : 월명동 도우미, 이민우 목사, 임세영 장로

1. 월명동도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그 산골로 살러 온 사연
선생님의 조부(祖父)는 1863년 7월 10일 충남 공주출신으로 부모의 슬하에 2남중 차남으로 태어나 27세때 조세 운송의 임무를 띠고 상경했다. 당시 흥선대원군에 발탁이 되어 그를 보필 하던 중 1895년(고종32년) 일제가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국모인 명성황후 시해 사실을 직접 목도하시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 이후 저물어 가는 조선의 국운과 시문에 대한 비분강개함을 참지 못하여 고향으로 낙향, 군답과 가산을 정리하여 노부모를 모시고 공주군 신도안 부암리 계룡산 아래에 은거하셨다. 1901년 8월 10일 그곳에서 박씨 이름의 정승의 현 손녀와 결혼. 슬하에 3남 1녀를 기르며 양친 공양에 힘쓰셨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제가 민족인사 체포에 혈안이 될 때 신변 위협을 느끼고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오대산 아래로 옮겨 생활했다. 그후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1929년 9월 월명동 현지에 정착하시게 되면서부터 달밤골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2. '자연성전'이라고 새긴 돌

'자연성전'도 500번 이상 쓴 것이다. '자'자는 자연스럽게, '연'자는 긴장된 느낌으로, '성'자는 움츠린 느낌으로, '전'자는 권위 있게 쓰셨다.

3. 앞산 정상에 있는 돌

세계에서 유일한 70-80톤이나 되는 돌로 쌓은 큰 조경은 앞산 돌조경은 완성해 놓고도 4번씩이나 무너졌다. 그 작업하느라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운동장 돌조경에는 밤늦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돌이 무너질 때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만든 후에 돌이 무너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완공됐다고 모두 기뻐하며 밤을 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기적이었다. 참으로 생명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역사였다. 위에서 바닥까지 무너져 깨진 돌들을 보고 선생님은 “돌은 무너졌어도 내 마음과 내 영(靈)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낙심치 말고 또 쌓자”고 하며 끝내 쌓은 것이다. 하지만 같

이 쌓던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까지 높이 쌓는 게 뜻이 아닌가 보다고 하며,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수많은 제자들은 돌 쌓다가 죽는다고 선생님을 못하게 울면서 말리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며 간구했다. 선생님은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었는지 내려와서 더욱 열심히 작업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수만 명씩 혹은 십만 명씩 이곳에 밀려오니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하나님이 함께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쌓자”고 용기를 주며 다섯 번째 쌓아 오늘의 작품을 만들었다. 야심작 꼭대기에는 한 쌍의 돌을 세워놓고 거기 새기기를 “구상은 하나님, 감동은 성령님,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 실천은 나와 제자들”이라고 썼다.

4. 낙타바위

이곳 서편 벽화에는 500여 톤의 거대한 자연석 낙타바위가 있다. 선생님은 해발 400m의 고지대 경사진 곳에 100톤이 넘는 웅장한 돌을 현대 장비로는 옮겨올 수 없으니,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표적으로 수백 톤짜리 신비한 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었다. 몇 주일 기도하는 동안 홀연히 하늘의 음성이 들려 왔는데 “서편 비탈진 밭의 사과상자만큼 보이는 저 돌을 파 보라”는 것이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선생님은 제자들과 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나무 연장을 만들어서 20여 일 동안 파들어 갔다. 그러던 중에 500톤 이상 되는 웅장한 바위가 나왔다. 마치 바위로 낙타를 조각한 것 같은 거대한 돌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돌을 캐고 옆에 바위 하나가 또 솟아서 그것도 마저 켜더니 역시 낙타였다. 이 낙타바위 돌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낙타 타고 동방박사들이 온 것을 연상케 한다. 낙타바위는 사막과 같은 이 시대에 진리를 따라가야 산다는 것과 귀인들이 많이 온다는 뜻과 외로운 인생 혹은 집념과 끈기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5. 북쪽 돌 틈에 예쁜 소나무

- 추정이므로 아래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산 돌조경의 광개토대왕돌 옆에 소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나무가 옮길 당시 분이 깨져버렸다. 분이 깨지면 나무는 거진 죽게 된다. 선생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먼저 캔 것이니 심긴 심는데 죽으면 약수위의 소나무를 대신 갖다 심겠다”고 하셨다. 이 소나무는 원래 생가 뒤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이 깨진 그 소나무를 안 죽게 하셨다. 이유는 북편 돌조경에도 소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

6. 폭포수 돌 사이에 소나무

- 추정이므로 아래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나무를 크레인으로 심는 과정에 50톤 크레인으로 작업을 했는데 심는 위치와 크레인 길이의 거리가 멀다보니 힘을 못써서 소나무의 목이 벗겨졌다. 이때 선생님께서 모 든 일은 여유 있게 해야한다고 하셨다. 큰 크레인으로 하

면 여유 있게 했을 것이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저 소나무가 죽으면 더 멋진 소나무를 심겠다’고 기도하셨다. 그러나 그 소나무가 꺾테기가 벗겨졌어도 결국에는 안 죽었다. 선생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때는 여유 있게 해야지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이야기해주셨다.

7. ‘오직 하나님’이라고 새긴 돌

이 돌은 보령에 있는 돌집에서 사온 돌이다. 이 돌을 사놓고서 무집고, 갖다 놓을 곳도 없어서 안 갖고 왔었다. 그러다 선생님은 그 돌이 잘 있는가하고 보령의 돌집에 가보게 되었다. 가서 보니 거기에 놓으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의 사인이 들어있기에 돌을 보면서 섭리 나갔던 사람도 오게 되었다. 그 돌을 보러 갔다가 다른 돌을 보며 거기에 있는 돌을 사오게 되었다. 저 돌 하나 때문에 다른 돌들도 연결되었다. 손가락 바위를 제시 받고 갔다가 ‘오직 하나님’ 바위를 사놓게 되었고, 1년 있다가 다시 그 돌을 보러 갔다가 나머지 돌 500-600 트럭을 사오게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 돌은 들다가 넘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뻔했다. 그런데 불이 번쩍 나면서 벼락 치는 소리가 났는데 돌도 안 깨지고, 크레인에 맞았는데도 강한 철판 부분을 맞아서 괜찮았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역시 오직 하나님이 구나”했다.

8. 약수 샘

약수 샘의 시초는 선생님의 생가 옆에 있었던 웅달샘이다. 선생님이 20년 이상 수도생활 하면서 영하 10도 이상 댔을 때도 그 물로 냉수 목욕을 하며 기도했었다. 지금의 약수는 1997년도 선생님이 직접 샘을 만든 이후 5천명 이상의 수많은 난치병자들이 나왔다.

처음 이 약수를 먹고 나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월명동에 구경을 갔다가 선생님 옛 생가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갈 길이 늦어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한다. 새벽에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잠만 자느냐, 일어나서 저 마당 옆에 웅달샘에 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네 병이 나으리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꿈에 쳐다보니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자기 머리맡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즉시 일어나 그 물을 먹으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가지로 물을 푹푹 퍼서 새벽 3시에 혼자 목욕을 했다. 그리고 난 후에 감쪽같이 병이 나았다고 했다. 그 병은 자기 남편이 13년 동안이나 고쳐주려고 온갖 돈을 쓰며 다 해봤지만 낫지 않는, 자신도 나오려고 교회 다니며 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기도도 받았지만 낫지 않던 난치병이었다. 이후 소문을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물을 먹기 시작했다. 선생님도 이 말을 듣고 기이하게만 여기고 믿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제자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한 바가지씩 퍼 주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바가지의 물을 들이키다가 소리를 질렀다. 둘러선 제자들과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왜 소리를 지르느냐고 했더니 귀가 열렸다고 했다. 사람들의 말이 들린다는 시늉을 했다. 알고보니 귀머거리인데 즉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자는

선천적으로 한쪽 귀머거리였다. 사람들의 소리가 확실히 들린다고 한쪽 귀를 틀어막고 좋아했다. 그 때부터 선생님은 그 물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고통을 받는 아픈 자들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충격을 받고 즉시 30톤이 넘는 큰 돌을 구하여 지금의 약수 샘을 만들었다.

9. 초가집

선생님이 살던 옛날 초가집은 이미 헐어서 없어졌다. 어렸을 때 가난함으로 사진을 찍어두지 못했다. 그 집은 조상 때부터 살던 150년이 넘는 집이었다. 화보로 내려고 하였지만 찍어놓은 사진이 없었다. 선생님이 어느 날 작업하는 중에 적당한 돌 하나가 필요하여 여기저기 찾고 있었으나 마땅한 돌이 작업장에 없었다. 결국 포크레인을 몰고 왕복 500m 넘는 곳으로 가서 흙에 반쯤 묻힌 돌 하나를 파 왔다. 쓸 곳에 갖다 놓았으나 제대로 맞지를 았았다. 결국 운동장 한쪽에 밀어 넣었다. 그날 비가 와서 더 작업을 하지 못하고 그 돌을 잡돌 버리는 데다 버리려고 들었을 때 오던 비가 너무 쏟아져 제자리에 놓아두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제자들과 축구하는 약속이 있어서 운동장 돌을 치우려 아침 일찍 어제 집어던진 돌이 있는 곳으로 갔다. 선생님은 그 돌을 자세히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옛날에 살던 초가집 모양이 90% 이상 닮아 보였던 것이다. 즉시 포크레인을 오라고 하여 제대로 세워 보니 정말 입에서 감탄할 정도로 옛날 살던 초가집 형상이었다. 그래서 그 돌은 옛날 초가집이 있던 장소에 갖다 놓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작품으로 소개시켰다. 어느 날 조경돌을 파는 사장이 세계적인 조경을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우리 회사 돌을 써 달라고 하였다. 돌을 얼마든지 대 주겠다고 하였다. 다른 회사보다 한 차당 5만원씩 헐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초가집 돌작품을 보고 넋을 잃고 만져보다 자기는 이런 자연석을 구하려고 1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으나 못 구했다고 했다. 자기 회사의 돌을 300트럭을 줄 테니 그 자연석을 달라고 했다. 이에 선생님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며 주지 았았다.

10. 분재 소나무

이 소나무는 조산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이 소나무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가져온 것이다. 선생님께서 돌에 대한 눈은 뜨고 나무에 대한 눈은 뜨지 았으셨을 때다. 중간에 가시다가 돌을 발견하고 나무를 베고 가지고 오려고 하였다. 톱을 찾았는데 톱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다. 다음에 가서 해야 되겠다고 내려가셨다. 그때쯤 선생님이 고민이 있었다. 심는 나무마다 죽는 것이었다. 기도 중에 ‘돌 위에 있는 소나무 옮기면 살겠구나’고 생각되었다. 산책하다가 아까 돌 위에 보았던 소나무가 생각났다. 이미 베라고 한 뒤여서 너무나 마음 조마조마하여 올라가 보았는데 다행이 그대로 있었다. 이 소나무는 150년 된 것이다. 돌 위에 소나무가 난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10만분의 1의 확률이다. 만분의 1의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동물에 의해 해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 바위를 가지고 가려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조산에 있으나 월명동에 있으니 1미터차이도 안난다.” 선생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 성전에 가져다 놓으면 좋지 않겠냐”하고 하나님을 설득하였다. 가지 하나라도 부러뜨리지 않고 갖다 놓겠다고 했다. 그래서 길을 내서 가지고 온 것이다.

12. 선생님 어머니가 살고계신 청기와 집

선생님도 가진 것 없고 보잘 것도 없을 때 어머니께 “내가 어머니 집을 꼭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끝내 지키시게 되었다.

어머니 집 위치에 그전에 밤나무가 있었고 밤나무 위에 까치들이 집을 짓고 있었다.

“까치야, 까치야, 너 거기에 집 짓지 마라. 내가 거기에 집 지으려고 한다.” 하면서 못 짓게 했다. 그런데 이미 많이 까치집을 지어버렸다. 까치가 못 들은 체하고 자꾸 짓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또 가서

“너 진짜, 내일이나 모래 하나님 허락이 떨어지면 나무 베고 까치집 무너뜨릴 것인데 그러면 너 안됐잖아. 나는 마음 아픈 것 못 본단 말이야. 빨리 가서 짓지 말라니까. 너 옛날에 짓던 큰 감나무 있잖아. 여기 큰 감나무 꼭대기에도 짓고 살지 그래. 왜 헌집에도 그래? 아, 너희들도 기분 내려고 새 봄 돌아왔다고 새로 집 짓고 서로 연애하면서 집짓고 새끼 낳으려고 그러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이놈 사용하지.”

그랬더니 여기는 다른 동물이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다람쥐가 와서 살고 있었다. 장마지고 비오니까 여기에서 살고 있었다.

“일단 나는 너에게 통보를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 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하나님께 집터를 달라고 자꾸 이야기했다. 여기가 원래 말집 터이다. 말처럼 뛰는 곳이면서 또한 날개 터이다. 여기에 집을 지으면 세계로 날아다닌다고 알았다. 그래서 거기에 집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앞으로 계획이 많은데 거기에 집을 지으면 되나?” 하셨다. 이 안에는 안된다고 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관리하겠다”고 했다.

“관리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기야 서서 근무할 수 없으니까 관리집이 있어야지.”

“제가 관리할게요. 내가 이 성전을 관리할게요. 우리 집에서 관리하면 어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까치에게도 집을 못 지게 해놓고 나를 보고 여기에 큰 집을 짓는다는 말이나? 그래도 집터까지 100평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에 꼭 필요하겠는데 내 집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수위집이 어떨까?” 했

더니 하나님께서 씩씩하게 생각하시면서 “기어코 장소를 받아내고 만다.”고 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여기에다 집을 지어라.” 하셨다. 지어 놓고 보니까 천하의 집터가 멋있었다. 지을 때 그냥 짓지 말고 작품으로 지으라고 해서 멋있게 지었다.

13. 호수 정자

430m 경사진 꼬불꼬불한 좁은 길을 따라 정상에 오르면 작은 호수가 보인다. 월명호다. 무려 100여 명이 올라와 앉을 수 있는 지름 13m, 기둥 둘레 150cm의 웅장한 모습으로, 세계 각지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대 정자다. 월명동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핵심지를 보면 보는 자마다 마치 여자 자궁 같다고 말할 한다.

지금의 연못 팔각정이 생기기 까진 사연이 있다. 원래는 둥그레산 팔각정이 연못에 들어오려고 했다. 한참 연못에 짓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방순회를 하고와서 보니까 너무 작은 것을 짓고 있었다. 작다고 목수에게 이야기하니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팔각정을 보통 이만하게 짓습니다. 나도 팔각정을 15개를 지은 대한민국에 유명한 팔각정을 짓는 목수입니다.”

“작아서 못 보겠습니다. 좀 참고해서 크게 하지, 이게 뭘 뵈니까?”

“아니, 제가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참고해서 짓습니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둥을 35전짜리를 짓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기둥이 작습니다. 나 이것 못하겠습시다.”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목수와 한참을 말다툼하다가 둘이 싸워봤자 손해만 가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기 산에 기도하는 곳에 짓고 다시 큰 놈을 갖다 짓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목수가 시간을 더 들어가지만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아주 싸게 짓게 되었다.

연못에 팔각정을 지었는데 나무를 아주 좋은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나무를 보러 같이 가자고 했다. 광주 지역에 나주 근반에 있는 곳이었다. 이 나무를 사러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다. 나무를 사러 갔더니 나무가 있는데 아직 좋은 것이 안 들어왔다고 했다. 좋은 것이 들어오면 해준다고 목재소 여사장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큰 나무를 가르켰다.

여사장이 “이렇게 큰 놈으로 팔각정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좋은 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후로 좋은 나무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놈을 기어코 연못에 세워 놓았는데 그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나무는 다른 회사로 가는 나무인데 모르고 주인이 최고 좋은 나무를 우리에게 준 것이었다. 알고 보니까 최고로 좋은 나무를 여기에 주었다고 했다. ‘하여튼 좋은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는구나! 인간도 하나님께 할

때는 좋은 것으로 해야겠다.’고 깨닫게 되었다. 420미터 고지에 이와 같이 작은 호수가 있다는 것은 아주 기적이다.

14. 동그레 산 정자

전망대에 지으려다가 지금의 장소에 짓게 되었는데 짓고 보니 가장 알맞은 장소였다. 그곳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다. 아래쪽 바위 위에는 분재 모양의 희귀 소나무도 자라고 있다. 선생님이 십대 어린 시절부터 기른 나무로, 100년 가까이 큰 바위 틈에서 자란 걸작품이다. 그 앞에 누가 갖다 심은 듯이 남성스러운 소나무 작품이 돌 틈이 한그루 우뚝 서 있다. 누가 봐도 한 쌍의 천생연분 커플이다. 이 소나무에 때가 되면 소쩍새들이 다른 나무도 많은데 꼭 그 나무에서 밤을 새우며 울어대긴다.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소쩍새와 무슨 인연이 있느냐고 물으니 선생님은 “나는 소쩍새를 제일 좋아한다. 예뻐서 좋아하기보다 사연이 깊어서 내 사연과 같아서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제자들이 무슨 사연이라고 물으니 “나도 밤을 지새우며 온 인류의 길을 찾기 위해 새벽까지 울었다. 다른 새들은 다 잠을 자는데 소쩍새만 밤을 새우고 나와 같이 울어대잖나”고 했다.

이 장소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12살, 13살, 8살, 9살 때 이 동산을 왔다 갔다 한 장소이다. 바위가 바닥에 조금 있다. 이 소나무는 내가 초등학교 때 빗자루같이 작았다. 이 소나무를 내 윗집에 있는 친구가 식목일날 이 나무를 뽑아다가 자기네 집에 심겠다고 나한테 바위틈에서 난 것을 같이 뽑자고 했다. 그때 둘이 뽑았으면 뽑혔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으니까 뽑지 말고 여기에다 놓고 같이 보자. 너희 집에 갖고 가면 너희 나무가 되지만 산에 있으면 같이 보니까.”고 했다.

그 나무가 너무 예뻐다. 시골 빗자루처럼 아주 예뻐다. 방 빗자루같이 생기지 않고 공장 빗자루같이 동그랗고 길쭉하게 생겼었다. 그랬더니 같이 안 뽑아준다고 지가 팽이 가지고 파간다는 것이었다.

“돌인데 어떻게 파냐?”

“내가 파갈래.”

그래서 내가 못 파가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결국 그때 흐지부지하면서 다른 데 가서 나무 하나 캐다 심었는데 죽었다. 그래서 이 나무도 그렇게 죽는다고 그 애 형들이 못 파가게 했다.

“죽는데 뭐하러 캐 오냐? 거기 놔두지.”

그래서 제 형들 말 듣고 못하게 해서 안 했다. 선생님은 계속 오줌도 누고 잘 기르고 싶어서 길렀다. 그 후에 보니까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를 베어갔다. 나무 베어갔다고 “이걸 누가 베어 가냐?” 하면서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 가지를 베어가면서 이 한 대공이 멋있게 수형이 잡혔다. 전지질을 한 것입니다.

또 베어 갈까봐 여기에다 철사로 감아 놓았다. 톱이 못 들어가라고 철사로 감아놓았다. 톱이 거기에 못 들어가라

고 철사를 뱅뱅 감아놓고 잡아매어 놓았다. 톱질을 해도 이미 감아놓은 철사 때문에 안되게 했다. 철사로 감아놓았다가 또 풀고, 또 감아놓았다가 풀고 하면서 크는 대로 풀어줬다.

결국 그렇게 보호해서 이렇게 멋있는 나무가 되었고 이곳에 정자를 짓게 되었다. 이 나무는 내가 가꾼 지가 47년이 넘는 것 같다. 오랜 만에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가꾼 것은 자기 것이 되고, 이 산을 결국 사게 되었다. 측량해 보니까 팔각정 조금 너머로 선이 넘어가 있었다. 그래서 괜찮게 되었다. 안쪽으로 측량이 되어 있었으면 짓지 못했을 것이다.

15. 청기와 집 옆에 용트림나무(故임 영철 목사의 사연이 담긴 소나무)

임영철 목사(대둔산 사고)가 죽은 후에 들어온 소나무로 임영철 목사의 아버지 임세영 장로가 가져온 소나무다. 임영철 목사가 살아생전에 그 나무를 월명동에다 심기를 간절히 원했었다. 그러나 나무가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사기를 원했고 그러던 중 임장로는 지인이 팔라고 때를 쓰자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눈이 왔다. 눈이 와서 나무의 큰 가지가 떨어져 버렸다. 가지러 오던 자도 눈이 와서 못 오게 되어버렸다. 임장로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닫고 결국 월명동에 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2007년 봄에 월명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16. 큰 바위 얼굴

선생님이 초등학교시절, 논둑길을 타고 교회를 가던 중 논 가운데 큰 바위를 보고 주인에게 이 돌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고 꼭 내가 끌어다가 월명동 내 집 마당에다 놓겠다고 했다. 논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어린 것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가느냐? 빼 가라. 빼 가면 나는 벼를 많이 심어서 좋다”고 이야기하며 웃었다. 그 둘은 그 주인이 모를 심다가 쉬고 밥을 먹는 장소였다. 결국 2001년 어느 가을 날, 43년 만에 돌을 캐서 선생님의 마당에 작품으로 놓았다. 그 돌은 104톤이나 무게가 나가는 큰 바위다. 그 돌 한 쪽에는 거북이 형상, 다른 한 쪽에는 인자하고 근엄한 사람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보인다. 이에 보는 자들이 큰 바위 얼굴 전설이 생각난다고 한다